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데라모또 미도리(다문화가정 학부모대표)

1. 다문화 자녀의 유치원생부터의 정기적인 심리검사, 상담치료.

부모지간에서도 원활히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 가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자녀에게 까지 미쳐 가족, 친구, 나아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2. 자존감, 정체성을 심어주기위한 주 1~2회의 방과후 다문화 활동.

부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는 한국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존감 형성 프로젝트.

3. 다문화 자녀 대학입학 장학금.

대체로 궁핍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자녀가 많기 때문에,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다문화 자녀의 한해 대학입학 장학금을 수여 하자는 안건.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잘 돼있는 것 같아 저로서는 추가할 내용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